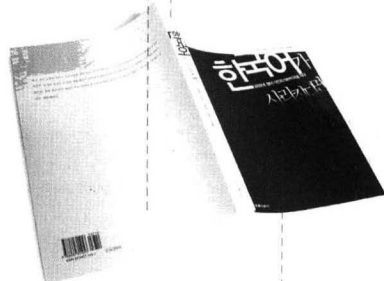


어떤 직원들의 영어과열수요에 대한 충격요법,



그리고 사람 사이

정주리 | 동서울대학 교양학부 교수

2000년 8월 한국어학회 전국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나는 지리산의 학회장으로 향했다. 8월의 지리산 나뭇잎들은 가지마다 질푸른 초록에 뒤덮여 내리쬐는 폭염을 힘겹게 받고 있었다. 오전 발표일정이 끝났을 때, 박영준 선배가 할 얘기가 있다며 내게 손짓을 했다. 선배를 따라 사람들의 무리를 빠져나와 갔더니 시정곤 선생, 최경봉 선생이 미리 와 있었다. 같은 대학의 동기요, 또 선후배 사이로 우리는 친숙한 사람들이다.

박영준 선배가 조심스레 대중을 위한 국어학 이야기를 같이 써보자고 말을 꺼냈다. 시정곤 선생과는 벌써 말이 오간 눈치였다. 두 사람이 먼저 뜻을 모으고 거기에 글 솜씨가 좋은 최경봉 선생과 그리고 여성적인 섬세함의 기대로 나를 가담시킨 것이다. '대중을 위한 국어학', 혹시나 학문의 곁길을 걷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으나 이내 우리 작업의 가치와 의미를 공감했다. 한 마디를 하면 두 마디를 알아듣는 교감의 위력이 발휘되었다. 그때부터 작업 일정이 박영준 선배의 진두지휘하에 짜여졌다. 우리는 먼저 국어표기법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로 했다. 먼저라는 말은 우리의 작업이 일회 출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작업을 해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저마다 말을 소주체들을 분담하고 분량과 원고마감 시기도 정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후에 우리 팀에 들어온 장영준 선생이 우리더러 무슨 폭력조직처럼 움직인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약속 지키기에 목숨을 걸었다. 딱은 그렇다. 서로가 소속된 대학이 있고 가르쳐야 할 학생들이 있고, 또 이리저리 마음써야 할 가정이 있는 형편에 공동작업은 자칫하면 마냥 시간을 끌 수 있는 일이 되기 쉽다. 한 사람이라도 제때에 시간을 못 맞추면 전체적인 작업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은 뻔한 일이 될 테니까. 조직의 쓴 맛을 보지 않으려고(?) 혹은 나만 차지하면 안 되지 하며 모두가 분주히 움직여, 마침내 첫 번째 작업의 결실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그 책이 《우리말의 수수께끼》(김영사, 2002년)이다.

책을 세상에 내놓고 자축과 소회를 갖는 자리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작업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제는 '우리말의 소리'를 다루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시정곤 선생이 문득 '영어공용화'를 먼저 다루어보면 어떻겠냐고 했다. 나이에 비해 머리가 벗겨진 시정곤 선생이 그날 따라 진지하고도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슬픈 모국어의 현실을 곱씹었다. 참, 이 작업부터는 영어학

을 전공하는 장영준 선생이 합류하기로 하였다. 국어학자만이 모여 쓰는 이야기에 영어학자의 목소리와 의견을 담는 것도 신선하고 폭넓은 안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장영준 선생이 팀에 합류의사를 타진해 왔을 때 우리 네 사람은 이를 또 일사분란하게 통과시켰다. 다행히도 장영준 선생 또한 대학동문으로서 우리 부대원(?)들과는 이미 질긴 교감의 맥락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터라 따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게 결정된 우리의 영어공용화 시나리오는 광화문의 한 찻집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가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우리는 그날 이 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쏟아붓는 “브레인 스토밍”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마음 속에 머물진 이 땅의 영어과열수요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리다가 ‘한국어가 사라질지도…’라는 비극의 결론에 이르렀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어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믿으면서도, 제나라 말을 이리도 홀대하는 작금의 실태가 누구에게라도 그리 안전감을 주지는 못했다. 영어공용화라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있어서는 안 되는지,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왕에 우리의 주장을 세상에 내놓자면 평범해서도, 진부해서도 안 된다는 데 또 생각이 모아졌다. 충격요법을 쓰기로 했다. 가상드라마를 쓰기로 한 것이다. 영어공용화가 실시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일상의 변화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기로 했다. 다시 우리의 작전은 어떤 조직(?)의 대원들처럼 움직였다. 수없이 메일이 오갔고, 의견을 조율하고, 자신의 원고를 다듬어나갔다.

드디어 마지막 손질을 한 후에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다. 어느덧 일 년의 세월이 흘렀다. 온 일 년을 이 작업에 바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야기는 늘 맴돌았다. 그 고민과 반성은 지금도 여전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두 번의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책을 냈다는 보람도 보람이지만 사람들을 새로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진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 박영준 선생님은 언제나 연장자로서 일을 진행하는 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매번 모임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연락하고 늘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것을 잊지 않는 자상한 선배이다. 후배들에게 뿐만 아니라 두 아들에게도 얼마나 자상한 아빠인지… 모임 때마다 사소한 이런저런 것까지 묻는 전화가 증명한다. 택인 춘천으로 가는 길에 아들에게 줄 책을 가득 담은 배낭이 언제나 어깨에 있었다. 또한 그는 인터넷 정보를 찾는 귀재였다. 어디에서 찾았는지 늘 적절한 자료들을 우리 네 사람에게 공급해 주었다.

시정곤 선생은 언제나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만드는 사람이고 또 의견 판단에 예리한 감각을 지녔다. 우리 원고에 대한 평가는 늘 그가 제일 혹독했고, 의견도 완강했다. 후에 그의 의견은 전체의 틀을 위해 알맞은 지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마음 쓸쓸한 일도 있었다. 그렇지만 타고난 그의 유머감각은 이내 자신의 냉정함을 잘 감싸 주었다. 개그맨들이 머리 좋아야 한다는 것은 시 선생을 보면 알 수 있다. 정확한 성격으로 우리 팀의 들고나는 살림살이를 적자 없이 잘 살아주었다.

장영준 선생은 걸만 보면 깡마른 체구에 빨데 안경 그리고 지적인 음성, 분명히 대단히 학구적인 인상을 주는데, 그에 어울리지 않게 일상을 늘 희화화하는 데 타고난 재주를 가졌다. 동음이의어만 골라서 변죽을 울리는 그의 능청은 거의 달인의 경지다. 그의 그런 능력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그 많은 일들을 지치지 않고 해내는 비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가끔 원고마감 시기를 놓치긴 했지만 언제나 마지막에는 빛나는 글을 만들어 가지고 나타났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 한 곳에 머물기 힘든 바람 같아 보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최경봉 선생이 참 듬직하다. 후배지만 그는 참 진지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꼼꼼하다. 그의 글이 왜 좋은지는 그를 보면 알 수 있다.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또 쉽게 쓰지도 않는 것 같다. 그 진지함이 글에 대한 사색과 안목을 키웠을 것이다. 선배들의 말장난에 늘 제일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어젖히는 그에게는 또 순수함도 묻어난다. 두 아들과 공부하는 아내를 잘 뒷바라지하는 더없이 좋은 남편이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의 두 번째 작업은 매듭을 지었지만, 우리 작업은 앞으로도 몇 번 혹은 더 여러 번, 다른 주제로 엮어질 것이다.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책을 쓰는 일보다 사람을 알아간다는 더 큰 결실을 얻는다. 